

TV의 형식적 제작 특징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박 해 원

울산 대학교

요 약

두 연령집단의 아동이 다양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시청한 프로그램중에 제시된 제작특징을 이해하는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의 검사지시 유무의 두 조건하에서 32명의 4세와 32명의 7세 아동이 1, 2명의 소집단으로 총 27분에 걸쳐 6가지의 프로그램(맥가이버, 교통안전 캠페인, 스포츠 중계, 코스비가족, 생방송 전국은 지금 및 나의 어머니)의 일부를 시청하였다. 곧 이어 아동은 개별적으로 시청한 프로그램중에서 제시된 장면들을 다시 보면서 이해도검사를 받았다. 연령(2), 성(2), 자극제시순서(2; 123456 또는 456123), 사전의 검사지시유무(2)의 변인을 피험자간 변인 그리고 이해영역(4; 시간관계, 공간관계, 특수기법 및 함축의미)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여 mixed design으로 분석한 결과 피험자간 변인에서는 연령의 주효과와 연령, 제시순서 그리고 지시간의 3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피험자내 변인의 효과로는 이해영역의 주효과와 이해영역과 연령간의 2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영역별 이해도는 공간관계(83.9%), 함축의미(60.9%), 시간관계(58.3%), 그리고 특수기법(37.5%)의 순으로 높았다. 이해영역별로 연령에 따른 수행차이를 보면 시간개념의 이해에서는 두 연령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공간관계, 함축적 의미, 특수효과의 이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두 연령모두에서 같은 이해영역의 이해에 있어서도 사용된 형식적 제작 특징에 따라 이해도가 유의하게 달라지는 것이 밝혀져 형식적 제작특징의 적절한 사용이 아동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1. 연구배경

TV가 우리의 생활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부터

1970년대초까지는 TV가 아동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 TV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아동의 공격성(aggression), 친사회적 행동 또는 기타의 고정관념들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이 때까지는 주로 TV의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되고 수

이 논문은 1990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육성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동적이고 수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청자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미국정부에서는 1960년대말부터 시작해서 TV의 폭력적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시켰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론은 TV의 사회화영향은 프로그램의 내용외에도 시청환경이나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들어 인과론적인 영향설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Surgeon General's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1972).

예를 들어 교육적 프로그램은 같이 시청하는 성인에 의해 보충설명될 때만이 효과적이라든지(Shaffer, 1985), 폭력적 프로그램은 워낙 공격성이 높은 집단에서 많이 시청되며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는 시청집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어떤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주의를 선행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주의를 아동의 연령 및 경험에 따른 이해도(comprehension)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Anderson, Lorch, Field & Sanders, 1981).

따라서 1970년대 초의 각종 폭력적이거나 친사회적인 프로그램내용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이어 1970년대말부터는 아동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TV프로그램의 기타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해(comprehension)란 시청자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해도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이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용이하게 이해하며, 발달에 따라 프로그램의 이해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다루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TV가 도입된 이후로 TV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시청각 교육

학과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는 있으나 연구의 결과들이 축적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왔다(박혜원, 광금주, 1989). 국내에서 연구된 주제를 살펴보면 TV가 학업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 TV시청유형의 분석, 프로그램내용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동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TV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TV의 형식적 특징(formal feature)은 이러한 요인중의 하나로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형식적 특징에 따른 이해도나 주의 집중도에 대한 연구는 아동용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수편에 지나지 않는다(김영희, 1986; 심경아, 1987; 이근영, 1978). 특히 아동용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아동이 가족용 외화나 성인용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데 다양한 제작기법을 사용하는 성인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형식적 특징(formal features)을 아동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하다.

2. TV의 형식적 특징

TV는 프로그램의 내용 그 자체외에도 책, 라디오와는 다른 독특한 프로그램의 형태(form)를 통해서도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TV프로그램의 형태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의 외형적인 측면을 의미하는데 크게 프로그램 유형(format)과 형식적 특징(formal feature)으로 구분된다. 프로그램의 유형에는 드라마, magazine, quiz 등이 있다. 드라마는 어느 내용이든 일관되는 줄거리를 갖는 극이며, magazine은 토크쇼와 같이 서로 독립적인 짧은 부분들로 이뤄진 프로그램을 뜻하며, quiz는 청중과 경쟁자가

있는 쇼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유형은 그 시리즈물의 모든 방영분에서 일관적이며 따라서 시청자에게 그들이 시청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형식적 특징은 보다 세부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과는 별도로 개개의 장면 또는 장면들간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자극의 특성을 뜻한다. 이것은 카메라 작동, 편집(editing), 특수효과(special effect) 등의 사용을 통한 제작기법(production technique)의 산물이다. 제작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전환(switching)시인데 TV에 나오는 전환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카메라에서 카메라로 전환으로 이는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다른 각도에서 제시할 때 사용한다. 둘째는 장면에서 장면으로의 전환으로 시간의 경과나 장소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끝으로 단락의 전환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끝나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단락의 전환에서 볼 수 있으며 드라마와 선전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전환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청자가 전환을 이해하고 사건의 진행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자가 cut, dissolve, fade, wipe, superimpose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형식적 특징을 구성하는 제작기법에는 각종 음향효과와 특수 효과(special effect) 등이 있다.

Huston과 Wright(1983)는 시청자가 TV와의 경험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형식적 특징을 이용하게 되며 결국 이 형식적 특징에 대한 이해없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형식적 특징을 action이나 전환에 의한 전개 속도(pace), 각종 시각적 효과, 그리고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청각적 특성의 세가지로 크게 구분하였다.

또한 Huston과 Wright(1983)은 의사소통적인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해서 이들 형식적 특징은 음향효과나 빠른 cut과 같이 지각적으로 현저하여 주위를 끄는 것, long zoom이나 singing과 같이 주제의 전달을 돕는 것 그리고 기타의 함축된 의미를 전하는 내용암시의 기능(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은 아동용이라는 것을 나타냄)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흔히 광고에서 사용되는 빠른 장면전환이나 특수효과는 주의를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두가지 이상의 장면이 한 화면에서 움직일 때 (multi-move기법) 우리는 동시에 서로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다고 이해하게 되며, 음향이 고르지 못하거나 실수가 나올 때는 그 프로그램이 현재 생방송으로 방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는 일정한 효과음이나 시각 기법(예, frame freeze)이 사용된다.

그런데 같은 제작기법도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면바뀜(cut)에 의해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준 후 눈에 쌓인 산장을 보여주는 것은 보통 산장에 대한 책을 읽는 것으로 이해되나, 산장을 먼저 보여준 후 실내에서 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산장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특징은 항상 프로그램의 내용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Smith, Anderson 및 Fisher(1985)는 내용과 무관하게 형식적 특징만을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공격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항상 빠른 pace로 많은 장면전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TV가 아동의 주의력을 짧게 만든다든지 무감

각하게 한다는 비판을 할 때 이는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를 비판하는 것인지 형식을 비판하는 것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아동용 프로그램에 관한 많은 비판은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어린 아동의 주의를 끌기 위해 지각적으로 돌출적인 특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 즉 내용 그 자체보다는 형식적 특징과 더욱 관련이 깊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의 TV제작기법에 대한 이해는 미약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alomon, 1979). 예를 들어 Salomon은 취학전 아동의 경우 실질적인 지각적 사건과 유사한 매우 단순한 제작 기법은 이해하나(예를 들어 cut은 장면 바뀔때) close-up-in에서 볼 수 있는 전망의 바뀔때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Rice, Huston 및 Wright(1984)은 6세미만의 아동은 스포츠중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instant replay를 실제로 반복해 일어난 것(예: 실제로 공을 두번 찬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밝히고 연령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여러가지 영상기법에 대한 이해도에는 발달적 변화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4, 5세의 아동은 줄거리이해가 안되고 장면별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으며 6, 7세이후야 현실감각과 줄거리이해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연구에서 TV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취학전 아동을 구체적 조작기에 이른 국민학생에 비교하여 한국 아동에 있어 TV의 형식적 특징이 지닌 시간관계, 공간관계, 특수효과 및 함축적 의미전달(cannotative function)이라는 정보적 기능(informative function)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간개념과 공간관계의 이해를 선택한 이유는 TV자극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간개념이 시간개념에 앞서 발달된다고 하는 한국의 자료(신영숙, 1977)를 재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외에도 아직까지 한국의 아동에게는 연구되지 못한 특수효과의 이해도와 기타 함축적인 의미의 이해도를 검사하고자 하였다. 특수효과와 관련하여 Rice(1984)등의 자료에서는 4~9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instant replay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여 6~7세이후야 이해된다는 것을 밝혔으나, 이들과는 TV시청경험이 다른 우리나라 아동의 자료는 없다.

또한 TV시청시 주의를 기울인 정도에 따라 수행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청후에 이해검사를 받을 것에 대한 지시의 효과를 검사하였다. Salomon(1983 a, b)에 의하여 아동은 TV시청이란 독서에 비해 적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TV시청시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만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그는 아동에게 특정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정보부하량이 높다는 처치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해 및 기억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TV시청시 독특한 초인지(meta-cognition)가 사용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초인지에 의해 과제에 대한 지시가 주어졌을 때는 수행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 수행의 증가에는 또한 연령적인 차이가 나타나 나이가 증가할 수록 그 지시의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Appel등(1972)은 4세 이하의 아동은 회상지시를 받아도 수행의 증가를 보이지 않으나 7세이상에서는 수행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려운 형식적 제작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TV시청보다 많은 covert attention을 유도했을 때의 수행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적 제작특징의 이해는 4세에서 7세 사이에

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난다.

2. 시청후 검사를 받는다는 지시를 받는 아동이 그러한 지시를 받지 못한 아동보다 이해수준이 높다.

3. 검사 지시에 의한 수행증가효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4. 이해영역별로 형식적 제작특징의 이해수준이 달라진다.

5. 같은 이해영역에서도 사용된 제작기법에 따라 이해수준이 달라진다.

방 법

대상 : 참여아동은 7월중 울산대 부근의 유치원과 국민학교 각각 1개소에 실험안내 및 참가희망서를 배부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보내온 회신에 따라 부모와 아동이 편리한 시간에 약속을 하여 모집되었다. 남녀 동수의 64명의 4, 5세(평균 53개월, SD=7개월)와 7, 8(평균 89개월, SD=6개월)세의 아동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 3명의 아동들도 참여하였으나 실험조건에 잘못 배치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일단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모두 실험절차를 마쳤다.

장치, 재료 및 기구 : 시청할 내용으로는 가족용 드라마(family drama) 3편과 다양한 TV 제작기법이 사용되는 프로그램 3편중 제작기법이 많이 사용된 부분을 선택하였다. 실험자료로 사용할 영상들을 선정하기 위해 4월부터 매월 한 주씩 교육방송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3개 TV채널(KBS1, KBS2, MBC)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중에서 심야 성인용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아동용(오전중의 뽀뽀뽀, TV유치원, 오후 6시대의 만화)이나 가족용 프로그램(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의 홈드라마 및 주말의 오전, 오후의

외국 홈드라마 및 액션물들) 그리고 기타의 스포츠와 뉴스프로그램을 무선적으로 녹화하였다.

그런데 뽀뽀뽀 등의 아동용 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사용된 제작기법이 너무 적고 단조로웠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예비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6, 7월중에 방영된 “맥가이버”, “코스비가족”,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일부를 선택하였다. 맥가이버(시작부분 6분 44초)에서는 흑백전환을 사용한 회상과 도청소리(특수효과)의 이해를, 코스비가족(중간부분 1분 26초)에서는 laugh track과 생방송 이해, 그리고 나의 어머니(끝부분 10분 39초)에서는 장면전환(cut)과 지우기기법(wipe)을 사용한 회상 및 생방송 이해를 조사하였다.

그 외에 드라마에는 흔히 사용되지 않는 형식적 특징들의 이해도를 검사하기 위해 “스포츠중계(육상경기: 3분 2초)”, “교통안전 캠페인(1분 30초)”, 그리고 “생방송 전국은 지금(3분 12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스포츠중계에서는 높이뛰기경기에 사용된 instant replay(특수기법)와 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릴레이와 높이뛰기경기의 camera switch에 의한 공간 전환을, 교통안전 캠페인(만화)에서는 이 만화가 성인용임을 아는 지와, cut 및 close-up-in에 의한 공간전환을 조사하였으며, 생방송 전국은 지금에서는 생방송 의미와 multi-move(화면이 둘 이상으로 나뉨)에 의한 공간관계의 이해를 검사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총 27분)은 맥가이버, 교통안전 캠페인, 스포츠 중계, 코스비가족, 생방송 전국은 지금, 나의 어머니의 순서(123456)와, 후반의 세 프로그램을 먼저 시청하는(456123) 두 가지 순서로 편집되었다. 두 가지 순서의 자극은 각각 1/2인치 videotape에 녹화되어 울산대학교 아동관찰실(10평)에서 VTR과 24인치 color TV를 사용해 방영되었다. 관찰실내에는 아동이 프로그램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심을 끌 수 있는 장남감이나 그림은 배치하지 않았다.

절차: 울산대학교 아동관찰실에 부모와 함께 도착하면 아동은 개별적으로나 또는 같은 시간에 약속된 다른 아동과 함께 시청실에서 실험자와 함께 약 27분에 걸쳐 한 가지순서의 TV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곧 이어서 시청한 내용에서 표집한 20초에서 1분가량의 장면들(123456순: 총 6분)을 보면서 이해도 검사를 받았다. 이 질문장면들은 그 장면만으로도 실문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제작되었으며 각 아동별 개별검사시간은 10분미만이었다.

프로그램의 시청에 앞서 무선적으로 선택된 1/2의 아동은 시청후에 이해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머지 아동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보자”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모는 응접실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었으나 아동이나 부모가 특별히 원할 때에는 부모도 아동옆에서 같이 시청하였다. 프로그램은 시청하는 동안 아동간이나 부모와 자녀간에 대화를 금지하였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아동에게 학용품선물을 주었다.

채점 및 분석: 이해도검사는 아동과 함께 TV를 시청하고 rapport를 형성한 실험자에 의해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해 시청직후에 이루어졌다. 총 11장면에 대한 15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질문엔 0 또는 1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분석을 위해 내용을 크게 시간관계(5문항), 공간관계(3문항), 특수효과(3문항) 그리고 함축적 의미(4문항)로 나누어 평균수행율을 계산하였다. 또한 같은 이해영역에 있어서도 돌출성(saliency)이 다른 여러가지의 영상기법을 사용했을 때 이해도가 달라지는 지를 비교하기 위해 각각의 내용영역별로 서로 다른 형식적 특징을 사용한 장면들에서의 수행율을 비교하였다. 시간관계영역에서는 모두 회상을

다루지만 단순한 cut(2문항), 흑백으로의 전환(2문항), 그리고 wipe기법(1문항)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였다. 공간관계의 이해에서는 multi-move(1문항)의 사용과 close-up-in(1문항) 그리고 camera switch(1문항)에 따른 공간전환의 이해를 측정하였다. 특수효과에는 instant replay와 laugh track(웃음소리), 그리고 특수음향효과(도청소리)의 이해를 비교하였다. 끝으로 암시적 의미의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캠페인의 용도(성인용 만화)와 코스비 가족, 생방송 전국은 지금 및 나의 어머니 프로그램의 생방송여부에 대한 이해를 비교하였다.

결 과

표1에 연령과 성별에 따라 시간관계, 공간관계, 특수효과 및 함축적 의미별 평균이해도를 나타냈다. 연령(2), 성(2), 프로그램제시순서(2; 123456 또는 456123), 사전검사 지시유무(2)의 변인을 피험자간 변인 그리고 이해영역(4; 시간관계, 공간관계, 특수기법 및 함축의미)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여 mixed design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피험자간 변인의 분석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F(1,48) = 24.784, P < 0.000$). 4~5세 아동의 전반적인 이해수준은 50.8%, 7세 아동의 이해수준은 69.53%였다. 기대되었던 회상지시의 주효과($F(1,48) = 0.172, P < 0.680$)와 지시와 연령간의 상호작용($F(1,48) = 0.076, P < 0.783$)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외에 연령과 제시순서 그리고 지시시간의 3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F(1,48) = 7.272, P < 0.010$).

피험자내 변인의 효과로는 영역의 주효과($F(3, 144) = 37.982, P < 0.000$)와 영역과 연령간의 2원상호작용($F(3,144) = 3.228, P < 0.024$)이 유의하였다. 영역별 이해도를 살펴보면 공간관계, 함축적 의미,

[표-1] 연령 및 성별 수행수준

내용		집단	4, 5세		7, 8세	
			남	여	남	여
시간관계 (회상)			* * *			
	흑백 전환		.625(.50)	.438(.512)	.875(.342)	.688(.479)
	Cut 전환		.313(.359)	.375(.428)	.344(.352)	.281(.364)
	Wipe 전환		.75(.447)	.75(.447)	.688(.479)	.875(.342)
	소 계		.536(.297)	.521(.321)	.635(.237)	.615(.190)
공간관계	Cut 전환		.875(.342)	.875(.342)	.938(.250)	.938(.250)
	카메라 전환		.250(.447)	.688(.479)	.813(.403)	.813(.403)
	Multimove		1.000(.000)	.875(.342)	1.000(.000)	1.000(.000)
	소 계		.708(.206)	.813(.210)	.917(.149)	.917(.149)
특수효과	소리변화(도청)		.125(.342)	.313(.479)	.688(.479)	.500(.516)
	Replay		.625(.500)	.563(.512)	.750(.477)	.500(.516)
	Laugh Track		.000(.000)	.125(.500)	.250(.683)	.063(.250)
	소 계		.250(.228)	.333(.298)	.563(.359)	.354(.257)
합축적의미	생방송		.563(.291)	.563(.434)	.833(.243)	.792(.206)
	성인용 VS. 아동용프로(만화)		.188(.403)	.438(.512)	.813(.403)	.688(.479)
	소 계		.375(.224)	.500(.370)	.823(.247)	.740(.258)

*평균 **표준편차

시간관계 그리고 특수효과 순으로 높았다(83.9%, 60.9%, 58.3%, 37.5%). 공간관계 이해와 합축적 의미 이해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t(63)=5.511, P<0.000$), 합축적 의미 이해와 시간관계의 이해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t(63)=.624, P<.535$). 또한 시간관계와 특수기법의 이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3)=4.508, P<0.000$).

이해영역별로 연령에 따른 수행차이를 보면, 7, 8세 집단의 공간관계의 이해도는 91.7%이고 4, 5세 집단의 이해수준은 76.0%였다. 두 연령집단에서 합축적 의미이해의 경우는 각각 78.1%, 43.8%의 수행을, 시간관계의 이해는 62.5%, 54.2%, 그리고 특수효과의 경우는 45.8%, 29.2%의 수행을 보였는데 Newman-Keuls($P<0.01$)검증에 의하면 시간개념의 이해를 제외한 모든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그러나 같은 시간관계(회상)의 이해에 있어서도 cut에 의한 전환(32.8%)보다 흑백전환(65.6%)이나 지우기기법(76.6%)을 사용했을 때의 이해도는 유의하게 높았다($t(63)=4.48, P<0.000$; $t(63)=6.17, P<0.000$). 흑백전환과 지우기기법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63)=1.47, P<0.15$).

공간개념의 이해에 있어서는 multi-move(화면이 둘이상으로 나뉘어짐)에 의한 공간관계의 이해(96.9%)가 가장 용이하였으며, 그 다음이 close-up-in(90.6%), 그리고 camera 전환(64.1%)의 순이었다. 이때 multi-move와 close-up-in($t(63)=1.66, P<0.15$)은 차이가 없었으며 이들은 각각 camera 전환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각각 $t(63)=4.908, P<0.000$); $t(63)=3.73, P<0.000$).

특수기법의 경우 가장 쉬운 것은 replay의 이해 (60.9%)이고, 소리바꿈에 의한 도청의 이해는 40.6% 그리고 laugh track의 이해는 10.9%로 가장 낮았다. 이들간에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63)=2.512, P<0.05$; $t(63)=3.74, P<0.000$; $t(63)=6.48, P<0.000$).

논 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아동용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예, 인형극 vs. 만화)과 연령에 따른 주의 집중도와 이해도의 관계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김영수, 1987; 김영희, 1986; 박신진, 1988; 박은경, 1982; 심경아, 1987; 안실, 1989; 이근영, 1978; 이재현, 1988). 그러나 아동의 프로그램 이해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제작기법(production technique)의 이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아동과는 시간과 그 내용면에서 다른 TV경험을 하고 자라는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TV의 형식적 제작 기법의 이해수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어려운 여러가지의 TV의 형식적 특징들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7, 8세 아동의 이해는 4, 5세에 비해 우수하여 전반적으로 69.5% 이상이었으나, 특수효과와 이해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45.8%). 특히 특수효과중 laugh track의 이해는 7, 8세 아동도 15.8%에 그치고 있다. 어린 아동의 경우는 전반적인 이해수준은 50%에 그치고 있다. 이해영역별로는 더욱 커다란 수행차이를 보여서, 공간관계의 이해는 93.8%인 반면, 특수기법의 이해는 29.2%밖에 이르지 못했다. 이 집단에서도 가장 수행이 낮은 영역은 laugh track의 이해로서 6.3%의 수준에 머물렀다.

Salomon(1983 a, b)이 지적하고 있는 지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먼저 본 실험이 아동의 가정과 같이 완전히 자유로운 자연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회상의 지시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아동들이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이 지역에서 유일한 대학교의 실험실이라는 상황이 모든 아동의 긴장을 고조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심경아(1987)의 연구에서도 시청후에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준 집단과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집단사이에 주의 집중도와 이해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과 일치한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은 실험이라는 상황이 주는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공간관계와 시간관계의 이해도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에서(신영숙, 1977) 공간관계의 이해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같은 이해영역내에서도 사용된 제작기법도 따라 수행이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시간관계인 회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cut에 의한 전환보다 wipe(지우기기법)을 사용했을 때의 이해도는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cut에 의한 전환과 지우기기법은 같은 프로그램(나의 어머니)속에서 회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기법이었으나 유의한 수행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는 형식적 제작특징의 적절한 사용이 아동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보면 TV를 가장 많이 시청하고 있는 4~7세 아동의 경우 형식적 특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용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아동이 성인용 프

로그램을 많이 보는데 이때 아동들이 성인용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성인의 이해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TV가 지니는 교육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인지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하며, 외국과 다른 TV문화를 지니는 한국 아동의 기타의 다른 TV의 구성 기법에 대해서도 그 이해도를 밝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의 TV시청시 이해하는 정도를 밝히기 위해 기존의 방영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여러가지 제작기법에 따라 제작하지 않음에 따라 프로그램 또는 특정내용과 형식적 특징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한 내용속에서만이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는 형식적 특징이 지닌 제한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겠다.

끝으로 최근에 이르러 우리의 생활환경의 일부가 된 TV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종의 meta-media라고 할 수 있는 시청기술을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즉 TV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현실과 가공의 구분, 광고 및 특수효과를 이해시키고 TV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 등을 지도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연구등이 필요하다. 앞으로 아동용 프로그램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한다고 볼때 아동의 연령별 이해도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청교육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영수(1989). 한국 유아대상 TV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논총 52집(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김영희(1986). TV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차이에 따른 시각적 주의집중도와 이해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신진(1988). 취학적 아동의 TV시청각 자료에 대한 시각적 주의 및 이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1982). I TV프로그램에서 color와 아동의 학습 성취도와와의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원. 광금주(1989). 아동의 TV시청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 심리학회지 : 발달. 2(1), 125~142.
- 신영숙(1977) TV프로그램에서 시간과 공간전환의 시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경아(1987). TV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의 주의집중도와 이해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실(1989). TV유아프로그램의 제작형태에 따른 주의집중도 및 이해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영(1978). TV프로그램 제작형태가 유아의 주의집중도 및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현(1988). 유아대상 TV프로그램에 대한 어린이의 시각집중과 이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D., Lorch, E., Field, D., & Sanders, J. (1981). The effects of TV program comprehensibility on preschool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46~453.
- Appel, L., Cooper, R., McCarell, N., Sims-Knight, J., Yussen, S., Flavell, J. (1972). The develop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perceiving and memorizing. *Child Development*, 43, 1365~1381.
- Huston, A., & Wright, J. (1983). Children's processing of television : The informative functions of formal features. In J. Bryant & D. Anderson, (Eds.). (1983). *Children's understanding of television : Research on attention and comprehension* (pp. 35~68). New York : Academic Press.
- Rice, M., Huston, A. & Wright, J. (1984). *Replay as repetition : Young children's interpretation of television form*. Unpublished manuscript, Univ. of Kansas.
- Salomon, G. (1979). *Interaction of media, cognition. and*

- learning*. San Francisco : Jossey-Bass.
- Salomon, G. (1983a). Television watching and mental effort : A social psychological view. In J. Bryant, and D. Anderson(Eds.) (1983), *Children's understanding of television*, NY, New York : Academic Press.
- Salomon, G. (1983b). Beyond the formats of television : The effects of student preconceptions on the experience of televiewing. In M. Meyer(Ed.), *Children and the formal feature of television : Approaches and findings of experimental and formative research*. (p. 209). NY, New York : K. G. Saur.
- Shaffer, D. (1985). *Developmental psychology*. Belmont, CA : Wadsworth.
- Smith, R., Anderson, D., & Fisher, D. (1985). Young children's comprehension of montage. *Child Development*, 56, 962~971.
- Surgeon General's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1972). *Television and growing up : The Impact of televised violence*. Waxhington,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bstract

Young children's comprehension of TV's formal production features

Hyewon Park Choi

University of Ulsan

In this study comprehension of formal production features of two age group children was compared. 32 preschool(mean =4.4 yr) and 32 school-age(mean=7.4 yr) children watched parts of 6 programs(27 inn) in a small group under either free or test-instruction condition. Immediately after viewing, children were tested individually with short scenes from the programs. Comprehension level was analyzed as a mixed design with age(2), sex(2), order of program presentation(2 : 123456 vs. 456123) and instruction (2) as between-subjects variables and content area (4) as a within-subject variable. As results, the main effect of age ($F(1, 48)=24.78, p<0.000$) and three way interaction effect among age by order of presentation by instruction ($F(1, 48)=7.27, p<.01$) were found significant. In the within-subject variable analyses, the main effect of content area ($F(3, 144)=37.98, p<.000$) and two way interaction effect of contest area by age ($F(3, 144)=3.23, p<.024$) were also significant. Comprehension was high in the order of spatial relation (83.9%), cannotative meaning (60.9%), temporal relation (58.3%) and special effect (37.5%). Two age group performed differently in all content areas except the temporal relation. In the detailed analyses, however, comprehension level was changed significantly depending formal production features even in the same content area. Therefore it was suggested that appropriate formal features should be used in childr's program.